동양제철화학 이수영 회장 경총 회장 재선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월23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수영(李秀永) 회장과 김영배(金榮培) 상근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2004년 2월 김창성(金昌星) 전 회장의 후임으로 경총 회장에 선임된 이수영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임돼 2008년 2월까지 경총을 대표하게 된다.

본 회장단에는 이구택 포스코 회장, 남중수 KT 사장, 심갑보 삼익LMS 부회장, 김창근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유병택 두산 부회장 등이 새로 선임됐다.

동양제철화학그룹 회장인 이수영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편, 경총은 2006년을 노사관계 질서 구축의 해로 설정하고 사업기본방향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대책 △복수노조시대에 적합한 현장 위기관리체제 구축 △산업별교섭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체제 구축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활성화 등을 설정했다.

<화학저널 2006/02/2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